

# 저성장 물가 불안 딜레마 탈출



신 세 철 역  
쉬운 경제

한국경제는 재정적자 누적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대(자산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잠재된 데다 단기 부양대책에 치중하다보니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생산 활동은 멈춰서고 물가불안 현상이 심해져 해결 방향을 쉽사리 찾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 도사려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일거리는 줄어들고 생산비용 금융비용이 커져 한계가, 한계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서둘러 물가를 잡으려다가는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성급하게 경기를 부추기려다가는 물가불안을 증폭시키는 진퇴유곡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국면에서 선부른 대책을 펼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다가는 나라경제는 균형을 잃게 되어 혼란이 거듭된다. 물가를 포기하고 돈을 계속 풀다가는 화폐 가치를 '폴란드 망명정부 지폐'처럼 타락시킨다. 반대로 경기침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1970년대 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처럼 역성장과 치솟는 실업률로 국민경제는 피폐해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갈팡질팡하지 말고 '통화중립'을 펼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들이 약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컨대, 원자재 공급교란을 금리를 올려 해결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정상적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연결고리가 되는 금리가 경기나 물가에 중립적이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를 부추기지도 않고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어야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 중립금리(natural rate of interest)는 시장금리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적정 수준이다. 금리가 거시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야 주식시장도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외환시장 또한 중장기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문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 아래서,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괜한 생색을 내려는 정책당국자들이

계 중립금리는 성에 차지 않는다. 각국이 화폐가치 안정을 추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전후 독일연방은행과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투사(inflation fighter)의 상징이었던 폴 볼커(P. Volker) 시대의 미국, 1980년대 제로인플레이션(zero inflation)을 추구한 캐나다 호주 같은 몇 개국에 불과하였다. 화폐가치 안정보다 일시적 경기 진작에 주력하다가 화폐가치 하락으로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뭉치 돈을 들고 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이들이 특별이익을 챙기게 된다. 경제는 무기력해지며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책 관계자들이 물가와 환율과 관련하여 금리인상 발언을 경쟁적으로 하는데, 자칫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은 금융부문이 거시경제상황과 균형을 이뤄 시장금리가 중립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데 그쳐야 한다.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책임자는 엉뚱한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흐르지 않도록 '지옥문을 지키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 한다.

/경제칼럼니스트

# 경윳값 고공행진,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지 수첩  
허 정 윤 (산업부)

"이렇게 힘들어서야 살겠나. 알뜰 주유소는 멀고 그나마 싼 곳에 들렀다." 파주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17톤트럭화물기사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윳값을 이야기하자 한숨을 쉬었다. 옥천과 경기 북부를 오가는 기사는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라는 기사의 말에 주유할 때마다 기록해 놓은 장부를 보여주겠다고 먼 전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가 내민 장부에는 2021년 5월 12일 180L(리터)를 주유할 때 22만 8천원이 들었다고 적혀있었다. 최근 180L를 주유한 날짜 옆에는 34만 1천원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 1년 사이에 부쩍 올라버린 경윳값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그나마도 주

유소 영업자는 "파주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안 나거나 경유 가격이 낮아 대형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옆에서 거들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통해 경유가 L당 1850원 이상 오르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절반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기준액인 1850원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L당 1850원에서 더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또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가 기준을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 상승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때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고작 리터당 50원이 지원되는 꼴이라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보조가 되지 않은 셈이다. 민주노동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서민의 유류부담을 줄여주려면 한시적으로나마 확대폭을 크게 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공급 가격이 높아진 상황은 정부가 바란 상황도 아니고, 이런 가격 상승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실천해야 한다. 11%에 달하는 정부 관리 산하의 알뜰주유소의 마진 조정을 통해서라도 주유소 간 경유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음 4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숨겨왔던 숨씨를 마음껏 발휘. **48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60년생** 아제의 친구가 오늘은 배신하기도 한다. **72년생** 생각이 없는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84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었으나 의외의 곳에서 재물소득이 발생된다.
- 37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49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61년생** 인생에 후심이 없이 바쁘게 간다. **73년생** 신세 졌던 사람의 빛을 갚는 날. **85년생** 이사할 때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 38년생**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이 우울. **50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62년생** 천재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 **74년생** 성공의 기회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 **86년생** 자각지성이 아닌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 39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실천하라. **51년생** 우울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3년생** 배려를 안 하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75년생** 먹는 것에 배탈 유의해야 하는 날. **87년생** 자급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 40년생** 다투기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 **52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이 있다. **6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은 금물. **76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가져온다. **88년생** 이직하여 하던 일에서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 41년생** 가족 간 시비가 있을 수 있다. **5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 **65년생** 연인의 사랑이 찾아오니 기쁜 일이 생긴다. **77년생** 가족의 협조로 일이 잘 상사. **89년생** 누구든 항상 태양은 우리 곁에 있듯이 행운도 내게 있다.
- 42년생** 아랫사람을 서로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4년생** 줄이 길어도 포기하지 마라. **66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를. **78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90년생** 무슨 일든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 43년생** 조직에서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5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꿈을 모을 수 없다. **6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도 지혜. **79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9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 44년생** 사랑에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6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용서로 이루어진다. **68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려있다. **80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92년생** 누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도록 실력을 갖추자.
- 45년생** 고인 일은 오후에 해결. **57년생** 진로수정을 심각하게 고민. **6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행동. **8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93년생** 용기가 없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
- 46년생** 기다리던 부동산 문서는 잘 살펴라. **58년생** 가정의 화목이 가장 먼저이다. **70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라. **82년생**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 일 아프다. **94년생** 직장에서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일 열심히 하도록.
- 47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59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한다. **7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3년생** 이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95년생** 말이 많다면 불필요한 실언도 많게 되니 진중히.



# 김상회의四季 여실한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다.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이치가 인과응보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짓는다는 것인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행위'를 뜻함이라. 불가에서는 행위란 입과 몸과 뜻으로 짓는 일체를 뜻한다. 신구의 삼업(三業)이 청정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의 불신한 업을 잘 다스려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선처에 나는 종자를 심는다고 한다. 그 의미에는 징악(懲惡)의 과보를 함축한다. 좋은 행위를 했을 때 받는 과보로서 인과응보라는 숙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악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그 결과로서 과보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반드시 징벌적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다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사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선한 사람이 세상사 굴곡이 많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많게 본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있는 것이 맞나하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많다. 붓다의 가르침 계승을 모아 엮은 법구경엔 이런 계승이 나온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만난다." 또한 명심보감의 첫 구절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이에 보답하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써 이에 보답한다."(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5		8	
		6	2	1	
9	3		1	2	4
2	6	3		7	9
	7	1		9	6
			1	8	3
			7		9
			4		

	7				8
9		7	5		6
			1		
	8		7		5
		2	9	1	8
	6		3		2
			8		
1		3	7		8
	9				1

**정답**

6	8	1	9	7	2	4	9	8
7	8	9	6	9	4	8	2	1
2	9	4	8	8	1	6	9	7
8	9	9	2	6	7	1	4	8
8	1	6	4	9	8	9	7	2
4	7	2	9	1	8	8	6	9
9	6	8	1	2	9	7	8	4
9	4	7	8	8	9	2	1	6
1	2	8	7	4	6	9	8	9

4	1	9	2	7	9	8	6	8
8	6	9	4	9	8	7	2	1
2	7	8	6	8	1	4	9	9
6	2	4	8	8	7	1	9	9
8	9	8	1	9	6	2	7	4
7	9	1	9	4	2	6	8	8
9	4	6	7	1	8	9	8	2
9	8	7	9	2	4	8	1	6
1	8	2	8	6	9	9	4	7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9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0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